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중동·아태지역,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성장 주도



이슈페이퍼

- 싱가포르, 해양사이버보안운영센터 개설



물류정책·산업동향

1. 로테르담항,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Hyper Smart Container) 통해 데이터 수집
2. 알파라이너, 금년 세계 컨'항만물동량 성장률을 2.5%로 하향 전망
3. MSC·CMA CGM, TradeLens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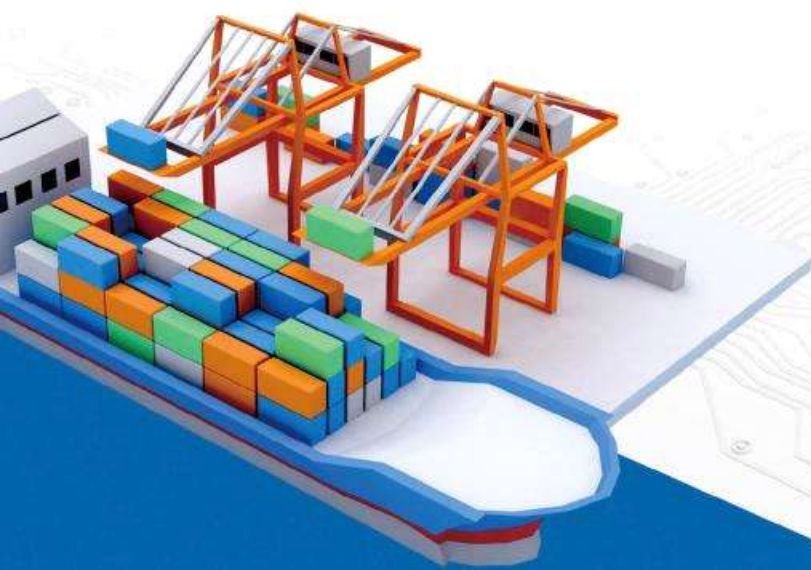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공지사항

-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모

명사 스피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은 기존 무역프로세스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존 해상 물류 서비스로는 ‘신 유통’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과 공유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형 물류플랫폼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범구 (주)케이엘넷 대표이사
(2019. 5. 28. / 물류신문 인터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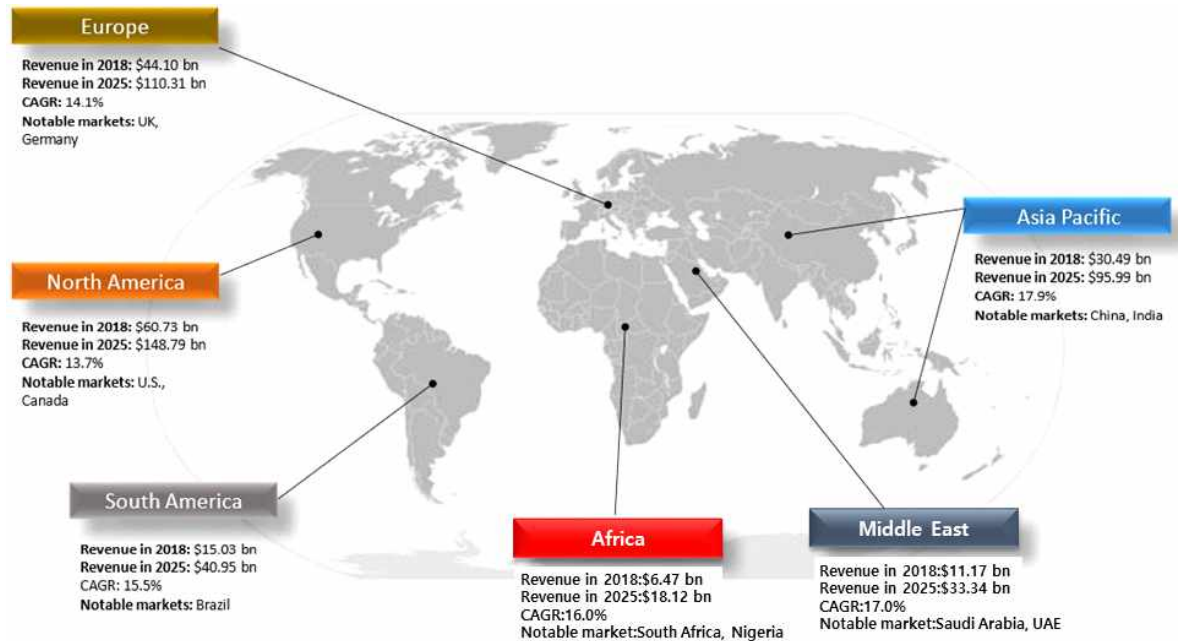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중동·아태지역,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성장 주도

2018~2025년도 권역별 콜드체인 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주: GCCA, IRTA, cold chain blogs, Hoover's, company annual reports, primary interviews, and Grand View Research
자료 : Grand View Research(2019), "Cold Chain Market: Market Analysis from 2014-2025"

-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콜드체인 시장은 북미지역임
 - 북미(607.3억달러), 유럽(441억 달러), 아시아태평양(304.9억달러), 남미(150.3억달러), 중동(111.7억달러), 아프리카(64.7억달러) 순임
- 2025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으로서 연평균 17.9%의 성장률이 예상됨
 - 아시아태평양(17.9%), 중동(17.0%), 아프리카(16.0%), 남미(15.5%), 유럽(14.1%), 북미(13.7%) 순임
 - 향후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이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는 가장 낮은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됨

참고자료 : Grand View Research(2019), "Cold Chain Market: Market Analysis from 2014-2025"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이슈페이퍼

싱가포르, 해양사이버보안운영센터 개설

- 싱가포르 해운항만청(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MPA) 이 2018년 11월에 설립한 해양사이버보안운영센터(Maritime Cybersecurity Operations Center·MSOC)를 2019년 5월에 공식 운영에 들어감
 - MSOC는 해양 정보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ST Engineering이 싱가포르 허브에서 이를 운영하게 됨
 - 해양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II) 에 대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의 조기 탐지,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싱가포르의 해양 보안 상태를 강화하고자 MSOC와 항만 운영 통제 센터 간 주요 데이터 연계를 구축할 것임
- MPA에 의하면 이 시설은 IT 환경에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상 및 위협을 인식한 다음, 다양한 기술 시스템을 사용해 대응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음
- MPA의 Niam Chiang Meng 청장은 “사이버 위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바쁜 환승 허브인 싱가포르항만은 해양 및 항만 중요 인프라를 보호해 항만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MSOC 개설 이외에도 MPA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힘
- 해양 사이버 보안 교육
 - 해양 전문가의 사이버 보안 기술 향상을 위해 Singapore Shipping Association (SSA) 및 Singapore Polytechnic과 협력해 교육 과정을 개발함
 - 이 교육과정은 사이버 위협 및 문제 관리에 대한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Maritime Cybersecurity (Intermediate) Training Course’로 1일 과정임
 - 이 과정은 참가자가 사이버 위협 관리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2020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임
- 해양 사이버 보안 연구
 - MPA는 Singapore Maritime Institute 및 고등 교육 기관과 공동으로 Maritime Cybersecurity Research program에 착수함
 - 이 연구는 선박에서의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선상 시스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사이버 보안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 2017년 NotPetya ransomware 발발 시 MPA는 로테르담항에서 조기 경보를 수신해 ransomware 공격이 전 세계 APM 터미널에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이버 보안 태세를 강화하고 위협을 완화하며 사건에 대응할 내부 자원을 준비할 수 있었음
- 이에, MPA는 Port Authorities Roundtable을 기반으로 항만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
- 이 네트워크는 사이버 위협 및 사건에 대한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항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Maritime Cybersecurity Operations Center 개설



자료 : <https://www.marineinsight.com/>

■ 참고자료: seatrade-maritime.com, “Singapore opens new maritime cybersecurity operations centre”, 2019.05.16. / hsmartmaritimemetwork.com, 2019.05.16. / marineinsight.com, 2019.05.17. / marsecreview.com, 2019.05.23.

권보배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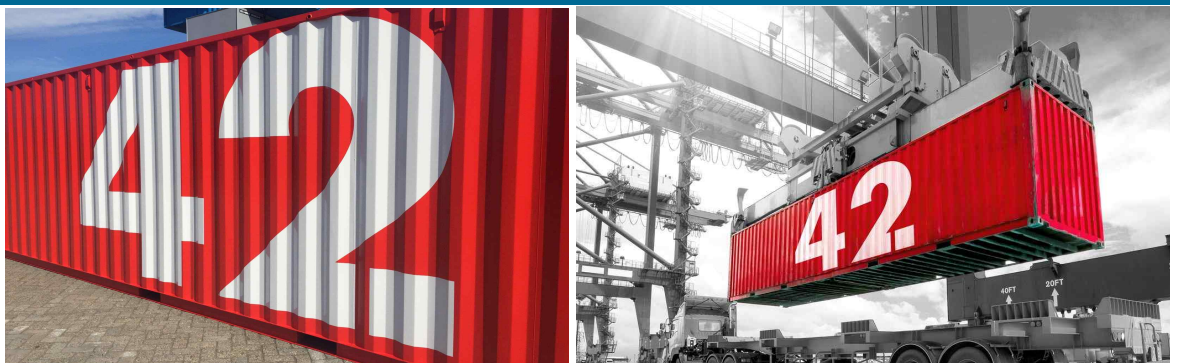
051-797-4774, b2kwon@kmi.re.kr



로테르담항,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Hyper Smart Container) 통해 데이터 수집

- 로테르담항이 컨테이너 운송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42(Hyper-Smart Container 42)' 운영에 들어감
 - 최초 로테르담항을 시작으로 6월 초 첫 번째 기항지인 독일 뮌헨(Munich)에 도착하며, 뮌헨에서 개최되는 Transport Logistic 2019(TLM) 기간 중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임
 - '하이퍼스마트 컨테이너 42'에는 센서 및 통신장비가 장착되어 컨테이너가 이송, 선적 및 하역되는 동안 어떠한 변화와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측정하게 됨
 - 여기에는 컨테이너에 발생하는 진동, 기울기, 소리 및 위치, 대기상태(오염 정도) 및 온·습도 등이 포함됨
 - 또한 태양열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컨테이너가 선박, 기차 및 트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양도 측정할 예정임
- 수집된 데이터는 로테르담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실시간 수집되는 데이터는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정보 등으로, 디지털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로테르담항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향후 2년 간 진행될 예정임
- 로테르담항은 과거부터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물류활동에 대해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으며, '하이퍼스마트 컨테이너 42' 역시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됨
 - 여기에는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함께 IBM, Cisco, Esri, Axians, Intel, Hyet Solar, Van Donge & de Roo, Awake.ai, Betta Batteries, Advanced Mobility Services, Kalmar 등이 참여함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42



자료: 로테르담 항만공사(www.portofrotterdam.com)

■ 참고자료 : World Maritime News, www.portofrotterdam.com 참조, 2019.5.28. 검색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알파라이너, 금년 세계 컨'항만물동량 성장률 2.5%로 하향 전망

- 알파라이너(Alphaliner)가 올해 1사분기의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약화 영향으로 2019년 세계 항만이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을 기존의 예측치인 3.6%에서 2.5%로 하향 전망
 - 알파라이너가 세계 250개 이상 항만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1사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의 동기 수치 6.6% 및 4사분기 수치 4.7%에 비해 크게 감소했음
 - 향후 미중 무역 전쟁 가속화로 인해 태평양 지역 물동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알파라이너의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 전망치 2.5%는 2017년의 6.7% 및 2018년의 5.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임
- 1사분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은 중동 지역 항만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1% 크게 감소한 것을 필두로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도 동 대비 각각 4.4%, 1.1%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중동 지역 컨테이너 물동량 약세 요인은 이란 항만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57% 크게 감소한 것 외에 UAE의 제벨 알리(Jebel Ali)항 및 오만의 살랄라(Salalah)항 등 환적 허브 항만의 물동량이 각각 9%, 12% 감소했기 때문임
 -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 항만의 물동량이 16% 감소했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및 프리맨틀 항 등의 물동량이 감소세를 보였음
- 중국(홍콩 포함) 항만의 1사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북미 항만의 경우에도 동 대비 4.8% 증가했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사분기 물동량 집계 결과가 나올 경우 미중 양국 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률 감소세가 관측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 2019.5.22.

한성일 부연구위원

051-797-4781, han@kmi.re.kr



MSC·CMA CGM, TradeLens 합류

-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와 CMA CGM이 Maersk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TradeLens에 합류하기로 결정함
 - MSC와 CMA CGM의 합류로 해운 공급망을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50%에 대하여 TradeLens를 기반으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임
 - 또한 MSC와 CMA CGM의 합류로 물류부문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협업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글로벌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CMA CGM의 Rajesh Krishnamurthy 부사장은 디지털화(Digitization)가 CMA CGM 그룹에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end-to-end 서비스 전략의 초석이라고 언급함
 - 특히 TradeLens의 개방형 표준과 개방형 관리 체계는 CMA CGM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플랫폼이라고 언급함
 - MSC의 André Simha 디지털 및 정보책임자 역시 디지털 협업은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한 핵심이며, TradeLens 플랫폼은 업계에 공급망을 디지털화하고 공동 표준을 바탕으로 협업을 추진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함
- TradeLens 플랫폼에서의 협력의 일환으로 MSC와 CMA CGM은 블록체인의 노드를 운영하고 트랜잭션과 호스트 데이터의 검증, 네트워크의 유효성 검사를 위한 합의에 참여함
 - 또한 MSC와 CMA CGM은 해운부문의 중립성과 개방성 관련 표준을 합의하기 위해 공급망의 여러 구성원들이 합류해 있는 TradeLens Advisory Board에도 가입할 예정임
- A.P. Moller-Maersk의 CCO인 Vincent Clerc씨는 Maersk의 전략 핵심은 고객의 사업수행 용이성 증대와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의 가시성 제공이며, TradeLens 플랫폼에 운송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생태계 전반에 걸친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9.5.28.

이기열 부연구위원

051-797-4670, kylee@kmi.re.kr



공지사항

2019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공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 2019년 5월 8일(수) 09:00 ~ 2019년 6월 7일(금) 17:00까지

2. 신청 사업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3. 신청대상

-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4. 지원내용

1)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2)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접수 기간: 2019. 5. 8(수) 09:00 ~ 2019. 6. 7(금) 17:00**

-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 문의처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606-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담당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6.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2) 사업제안서 10부(양식 참조,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참조)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6)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7)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 (8)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7. 선정절차 및 방법

-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최종 결과발표 (예정)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